

## 이집트면

이집트면의 시작은 약 6백 여년 전 주멜이란 사람이 카이로 정원 안에서 섬유장이 긴 면화를 우연히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집트는 국토의 96%가 사막이고, 농토는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일강 유역으로 가늘게 이어진 토지와 델타 삼각주지대뿐이다.

고대의 나일강이란 여름이면 장마로 범람하고 양안의 저지대는 언제나 물이 찼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흙이 물에 섞여 비옥한 자양분을 옮겨오고, 이러한 흙이 퇴적한 땅이 경작지가 되었다. 따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는 지대는 사막이 된 것이다.

이 비옥하게 퇴적된 경작지를 케메트(Kemet=홍수의 땅 혹은 검은 땅)라 불렀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집트 자체를 케메트라 부르기도 하였다.

이집트는 강수량이 적은 건조한 나라로서 카이로 주변의 강수량은 25 mm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면화 생산은 모두 관개 사업으로 이어진다. 피라미드나 �핑크스, 아스완의 석조 신전이 지금도 깨끗이 남아 있는 것은 강수량이 적기 때문이다.

카이로 주변의 연간 기온은 최고 42℃, 최저 4℃이며, 연간 평균기온은 21℃다. 주변이 사막이기 때문에 하루의 기온차가 커서 일교차가 20~30℃가 되기도 한다.

이집트면은 세계 면화 생산량 2,677만 8천 톤(2010/2011)에 비하면 1% 정도인 27만 5천 톤(2011/2012 추정)이지만, 이집트가 면화 생산국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 면화의 우수성 때문이다. 이집트면은 실크와 비슷한 광택이 나고 긴 섬유장은 어느 면에선 해도면을 능가하기도 한다고 보는 업자도 있다.

이것은 비옥한 검은 농토, 나일강에서 끌어오는 풍부한 관개수, 적은 강수량, 적당한 기온 등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진 결과다.

현재 이집트에서 생산되는 면화는 80번수 이상의 세번수 원료가 되는 초장섬유면(섬유장  $1\frac{5}{6}$  in. 이상)과 60번수 이상에 사용되는 장섬유면( $1\frac{1}{4}$  in. 이상) 두 가지다.

이집트면은 처음 발견되었던 주멜 종에서부터 해도면이나 브라질면 등과의 오랜 종자 교배 끝에 확정된 품종으로서 씨를 뿌려서 수확할 때까지의 기간이 150일이나 되며, 100-120일이 소요되는 육지면(Upland)의 경우와 대비된다. 수확은 코튼볼(Cotton Ball) 하나 하나를 손으로 채집한다.

이집트면은 초장섬유면과 장섬유면이 80%를 차지하며 그 중에서 절반이 국내에서 소비되고 나머지가 수출된다. 우리나라에도 연간 약 2 천만볼 어치의 이집트면이 수입되고 있다.

개인적인 실패담을 담아보면, 1995년도 이집트를 방문하였을 때 순면 론(lawn)이 하도 부드러워서 사 갖고 와서 분석해 보니 폴리에스터 섬유가 35% 혼방된 것이어서 실망한 적이 있었다. 분명히 순면제품이라고 하였는데… ♣(공석봉)

